

#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및 노후 생활지원 요구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일본 은퇴자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Effect of Retirement Anxiety, Retirement Life Preparation and Post-retirement  
retirement needs on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Focusing on Japanese Retiree Survey Data-

일본 弘前大學 교육학부  
준 교수 이수진<sup>†</sup>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은퇴 전후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전국 60세 이상 74세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분석에는 1,257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불안 요인 중 남성과 여성 모두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이 다른 노후불안 요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생활 준비의 측면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준비 점수가 클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퇴 후 노후 생활지원 요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에,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은퇴 이후의 시기에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본 은퇴자 조사,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 은퇴 후 생활만족도

## 〈Abstract〉

In this study, we used survey data from Japanese retirees to determine the levels of retirement anxiety, retirement life preparation and retirement life needs in retirement and analyzed how these factors affect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The analysis was based on a survey of retirees aged 60 to 74 across Japan, with data from 1,257 peopl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both men and women were found to have higher levels of retirement anxiety in terms of economic aspects, such as lack of income, savings,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 JP20K02381.

\*\*주저자, 교신저자: 이수진(pourtant22@gmail.com), <http://orcid.org/0000-0001-6104-6967>

and living expenses, than other forms of retirement anxiety. This trend was more pronounced among men.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retirement anxiety in terms of economic aspects, the low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for both men and women. Third, in terms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life, greater preparation for the economic aspects of retirement life corresponded to higher life satisfaction for both genders. Finally,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of post-retirement life requirements, it was found that men who perceived a greater need for re-employment and re-employment opportunities experienced lower levels of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s and employment-linked initiatives to enhance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Key words:** Japanese retiree survey data, retirement anxiety, retirement life preparation, post-retirement retirement life needs,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 I. 서론

일본 내각부의 「2023년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접하는 비율 즉 고령화율은 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기간을 일컫는 건강수명은 2019년 시점에서 남성 72.68년, 여성 75.38년으로, 2010년에 비해서 남성은 2.26년, 여성은 1.76년 늘어났다. 또한,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 인구 중 약 90%는 노년기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취업의욕(‘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다’, ‘70세 정도까지는 일하고 싶다’, ‘75세 정도 혹은 80세 정도까지는 일하고 싶다’를 합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内閣府, 2023a).

OECD의 보건통계(2023)에 따르면 일본의 기대수명은 84.5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았고(OECD雇用品局医療課, 2023), OECD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실질 은퇴 연령이 평균 70.8세로 보고되었다(조선일보, 2022). 2012년 개정된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제8조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정년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정년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65세까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65세까지 정년을 늘리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정책 중에서 하나의 조치(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1). 후생노동성의 「고령자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21인 이상의 기업 235,875사에서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35,620사로 조사대상 기업의 99.9%를 차지하였다(厚生労働省, 2022).

기대수명과 실질 은퇴 연령의 차이에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의 기간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직 및 은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뿐만 아니라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고령자들의 은퇴 이후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생활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고령자가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 및 사회 정책적 차원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또한,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였다(조선일보, 2022). 앞서 살펴 본 일본의 실질 은퇴 연령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질 은퇴 연령이 높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인 빈곤의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전후의 노후불안 수준은 어떠한지,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생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개인은 어떠한 사회 정책적인 노후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인적 노후생활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 노후 생활지원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퇴가 가져올 수 있는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 등을 포함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지원 등과 같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개인적

차원의 노후생활 준비 및 사회 정책적 차원의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후불안 · 노후생활 준비 · 노후 생활지원 요구

#### 1) 노후불안의 양상

노후불안은 노후생활 준비와 더불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일터를 떠나서 퇴직하거나 은퇴를 한 사람이 느끼는 노후불안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은퇴자가 느끼는 노후불안은 상실과 크게 관련이 있는데, 상실의 영역은 건강상실, 관계상실, 경제상실, 역할상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상실은 '신체적 병이 생겼다',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관계상실은 '주변 사람(가족, 친구, 친척)들과 연락이 뜸해졌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경제상실은 '예전보다 소득이 줄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 역할상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 '실직했다' 등의 내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백지은, 2018).

의場(2018)의 연구에서는 55세에서 69세의 사람들이 정년 퇴직 후의 생활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능한 한 길게 일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될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불안은 생활비 감소 등의 경제면에서의 불안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동시에 표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친구 혹은 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 같은 불안이 있다', '생활리듬을 찾기 어렵다', '정년 후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할지 모르겠다', '고독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생명보험문화센터에서 전국 18-79세 남녀 4,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2022)」에 따르면, 60대 및 70대 응답자의 약 80%가 노후생활에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안감의 이유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경제면에서의 불안, '건강상의 제약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곤란'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거동 불편 및 병치레라는 건강면에서의 불안, '자신의 간호 및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불안을 들고 있다. 이 불안은 건강면에서의 불안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안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 2023). 내각부(2021)의 「고령자의 일상생활 ·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조사」(전국 60세 이상의 남녀, 4,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 '병상생활 혹은 요양등급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을 노후생활 불안요소로 여긴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비 충당', '부동산

과 모지관리', '상속의 문제', '사회적 고립' 등도 노후생활 불안 요소로 들고 있으나, 건강에 관련한 불안보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内閣府, 2021).

#### 2) 노후생활 준비의 양상

노후생활 준비에 관련한 영역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노후생활 준비에는 건강에 관련한 요소,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에는 노후자금, 노후생활비 등에 관련한 요소, 사회적 노후생활 준비에는 가족관계, 지인 및 친구,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은퇴노인이 노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건강이라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드러났다(남순현, 2017; 김민정, 박주영, 2023). 또한, 김태현 외(1998)는 60~89세의 46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령자들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상위계층 고령자들의 은퇴준비는 경제적 준비가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준비라기 보다는 노후대책으로 저축이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 전국의 60세 이상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조사(201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및 보험 이외의 노후 대비로서 사적인 연금 및 보험 가입 상황을 보면, '생명보험'이 48.3%로 가장 많았고, '질병 및 부상에 대비한 보험'이 29.3%, '개인연금'이 12.2%였다. 한편, '사적인 연금 및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6.2%를 차지하였다(内閣府, 2019).

지인 및 친구와의 교류,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고령자들의 노후생활 준비 요소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남순현(2017) 은퇴노인의 적응 유형을 분류하고 일-여가 양립형, 일 중심형, 여가탐닉형으로 분류된 유형의 특징을 기술하였는데, 각각의 유형들은 다양한 모임을 활성화시키면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축소된 사회관계망 확장하고 유지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근하(2020)는 일본의 은퇴자 20명을 대상으로 은퇴자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가에 참여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 혹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라는 대답보다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5명(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은퇴 이후에 축소되는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각부의 「제9회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2020)」에서 사회활동에의 참가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근린의 공원 및 거리 청소 등의 미화활동'이 17.3%, '지역사회의 행사, 마을의 행사에 참여'가 15.9%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신의 취미와 기능을 살린 지원 활동'과 '취미, 스포츠, 학습활동 등의

지도' 등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활동이 각각 5.9%, 4.2%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안전과 방법 및 방재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사회봉사 활동이 4.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5.0%, '이전에는 참여 하였으나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가 19.1%로 나타나(内閣府, 2020),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3) 노후 생활지원 요구의 양상

노후 생활지원 요구 영역으로는 취업기회의 확보, 취미, 학습, 사회활동 기회 및 정보 제공, 사회적 교류의 장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취업 요구(有馬, 2021), 고령자의 사회참가 요구(東京大学高齢社会総合研究機構, 2014),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 요구(健康長寿ネット, 2019)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주로 이루어 졌다. 고령자의 요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건강장수넷(2019)에서는 '고령이 되면 청소, 세탁, 요리, 생필품 사기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가사 등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고령자의 일상생활 요구'라고 정의하고 있다(健康長寿ネット, 2019). 본 연구에서는 은퇴 한 고령자의 입장에서 노후 생활을 지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노후 생활지원 요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서울시50 플러스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형 노후준비 지원 영역을 교육 영역, 상담 영역, 활동 영역, 일자리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의 노후준비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에는 생애전환기 기초교육, 사회참여 교육, 미래사회 대응 기술 역량강화, 상담 영역에는 일, 활동, 대인관계, 재무 영역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및 상담, 심층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활동 영역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등 지원, 중장년 자원봉사활동, 일자리 영역에는 사회공헌 일자리, 재취업 희망자의 인턴십, 중장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임소현, 이영광, 2022).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공포 및 시행된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1995년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은 14.6%에 달하였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였다. 현재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년 법률 제 129호)에 기반하고 있다. 고령사회대책에서 추진하는 기본적 시책으로는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가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및 소득 분야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환경정비,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재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되고, 건강 및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유지를 위한 종합적 추진, 지속가능한 개호보험 및 고령자 의료제도의 운영,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자 지원 시책의 추진, 인생의 최종단계 의료의 이상적인 형태 추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습 및 사회참가 분야는 학습활동의 촉진, 사회참가활동의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内閣府, 2012). 이러한 활동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후 생활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후 생활지원에 관해서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활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지원이 효과적이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의 입장에서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 참고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김태현 외(1998)에 따르면 조사대상 고령자 중에서 은퇴준비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직업특성상 사학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정도였다. 즉, 9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은퇴와 관련된 서비스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현식, 최미영과 정장석(2018)의 연구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은퇴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이행과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퇴준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2.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노후불안

앞 절에서 일터를 떠나서 퇴직하거나 은퇴를 한 사람이 느끼는 노후불안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 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은퇴유무와 관계없이 고령자의 노후불안은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불안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된 불안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적 불안은 건강불안, 인간관계 불안과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松浦, 2011).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의 노후불안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노후불안과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과 저축, 생활비의 부족,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비 및 간병비,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때의 시설입소 비용, 자산관리 및 상속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불안을 노후불안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노후불안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 노후생활 준비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주, 이희숙, 2015; 김기홍, 양세정, 2017; 김민정, 박주영, 2023). 김기홍과 양세정(201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가 은

퇴 후 생활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은퇴생활 만족도는 높았다. 광민주와 이희숙(2015)은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은퇴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비해 총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김민정과 박주영(2023)의 연구에서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들도 존재한다.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 높고(광민주, 이희숙, 2015), 퇴직 후에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 사회적응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이종희, 2001)가 있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수 많을수록 은퇴만족도 높다는 연구(김미영, 손서희, 박미석, 2011),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민정, 박주영, 2023), 사회활동참여정도가 많을수록 은퇴만족도에 크다는 연구(신현구, 2007), 은퇴한 만 5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위세아, 2019),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응도가 높다는 연구(이종희, 2001)가 있다.

### 3) 노후 생활지원 요구

노후 생활지원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노후 생활지원과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노년기에 어떤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場(2018)에 의하면, 정년 전후의 사람들은 정년퇴직 후에 '남녀모두 취미활동을 즐기고 싶다'는 응답이 80%정도로 가장 많았고, '체력유지를 위해서 스포츠클럽에 다니는 등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는 응답은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미, 학습 등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녀양육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간병 및 간호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및 타인과의 교류기회의 확장 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Kadoya & Khan(2020)는 전국의 18-79세의 16,345명에 대해서 금융지식, 금융행동 및 태도, 금융리터러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과 금융리터러시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산관리 등의 차원에서 금융교육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인데, 노년기에는 더욱 더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17명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노후를 위해 경제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었다. 또한, 필요한 경제교육으로는 연금과 보험 등의 금융에 대한 경제교육, 자금 운용과 같은 재산증식에 대한 경제교육, 합리적 소비에 대한 경제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염인숙(2019)은 중장년층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퇴직 이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찾는 등 생애맞춤형 교육,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 본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항목을 참고로, 은퇴한 고령자의 입장에서 어떤 노후 생활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퇴직 및 은퇴준비교육과 퇴직 및 은퇴상담 기회 필요', '퇴직 후의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 필요', '취미·학습과 사회활동을 위한 기회 및 정보 필요', '퇴직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장이 필요', '퇴직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를 설정하고 이러한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취업유무, 건강상태, 가구유형을 들 수 있다.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 최새은, 2010; 주소현, 이지혜, 홍수아, 2012; 김민정, 박주영, 2023). 연령에 있어서는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은퇴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손유경, 최성문, 2020), 중고령 남성 은퇴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미영 외, 2011)가 있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이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김주희, 이기영, 최현자, 2009)도 공존한다. 학력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다(신현구, 2007; 김미영 외, 2011; 광민주, 이희숙, 2015; 김기홍, 양세정, 2017; 위세아, 2019; 손유경, 최성문, 2020). 취업유무에 대해서는 소일거리가 없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할 경우, 은퇴 이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좋을수록 은퇴생활 만족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신현구, 2007; 성미애, 최새은, 2010; 김미영 외, 2011; 주소현 외, 2012; 광민주, 이희숙, 2015; 위세아, 2019; 김민정, 박주영, 2023). 가구형태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 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 비해 은퇴생활 만족도가 높았다(신현구, 2007; 김기홍, 양세정, 2017; 손유경, 최성문, 2020).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자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은퇴자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고령자의 은퇴·퇴직 경험과 생활에 관한 조사(2022)」이다. 본 조사는 일본 H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것이다. 본 조사는 인터넷 조사회사(주)인테지에 위탁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상기 회사에 등록된 모니터 정보를 토대로 60세 이상이면서 1인가구이거나 본인과 배우자만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구에 속하는 은퇴자 2,364명에 대해서 조사 협력을 의뢰하였고 1,257명(회수율 53.2%)로부터 협력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1,2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은퇴자를 ‘취업하고 있는 동안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를 그만 둔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지난주에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 및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18시

간 이상 도와준 경우’는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은퇴자 정의와 유사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은퇴자는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22). 한편, OECD 통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은퇴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OECD 통계에서 실질 은퇴 연령이란,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월급을 받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나이를 뜻한다(조선일보,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OECD의 은퇴자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 평균(M)과 표준편차(SD),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 및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은퇴자의 노후불안 및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불안은 다섯 문항으로 측정

<표 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수입과 저축의 감소, 생활비 부족	“당신은 노후에 수입과 저축이 적어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1점)~‘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1점)~‘매우 걱정하고 있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간병비용	“당신은 노후에 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돌봄(간병 및 간호)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1점)~‘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1점)~‘매우 걱정하고 있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노후 불안	“당신은 노후에 혼자서 거동하기 어렵게 될 때, 거소를 옮기거나 유료노인홈의 입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1점)~‘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1점)~‘매우 걱정하고 있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자산관리의 어려움	“당신은 노후에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1점)~‘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1점)~‘매우 걱정하고 있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본인 사후 상속 등의 재산관리	“당신은 본인 사후에 상속 등을 포함한 재산 관리 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1점)~‘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1점)~‘매우 걱정하고 있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노후 생활 준비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당신은 은퇴 전에 건강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저축, 주택 등 경제적 기반구축	“당신은 은퇴 전에 저축, 주택 등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평생 취미 만들기	“당신은 은퇴 전에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등을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노후에도 활용 가능한 전문적 기술 습득	“당신은 은퇴 전에 노후에도 활용가능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도모	“당신은 은퇴 전에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지인/친구 교류	“당신은 은퇴 전에 지인, 친구와의 교류를 깊게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이웃/지역사회 교류	“당신은 은퇴 전에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깊게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일터 이외의 활동하는 장소 만드는 것	“당신은 은퇴 전에 일터 이외에 활동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1점)~‘매우 노력하였다’(5점)로 측정하였다.
노후 생활 지원 요구	은퇴 준비교육과 상담기관 필요	“노후 생활 지원으로 은퇴 준비교육과 상담기관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 후의 재고용/재취업기회 필요	“은퇴 후의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취미·학습, 사회활동 기회 및 정보 필요	“취미·학습, 사회활동을 위한 기회 및 정보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자의 능력 발휘 기회 필요	“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장소)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기회 필요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장소)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측정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은퇴 후 생활만족도	“당신은 주된 일을 그만두기 전과 비교해서 주된 일을 그만 둔 후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서 ‘만족한다’(1점)~‘만족하지 않는다’(5점)로 측정되었고, ‘만족하지 않는다’(1점)~‘만족한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현재 소일여부	“당신이 주된 일을 그만 둔 후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일을 하고 있다 ②일을 하고 있지 않다 는 응답을 얻었다. 또한, ②일을 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신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일을 하고 싶다 ②일을 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을 얻었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조합하여, ①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 ②은퇴 후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다 ③은퇴 후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	

하였는데, 이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7644였고, 노후생활 준비는 여덟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8372였다. 노후생활 준비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서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자기계발에 관련한 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6834, 사회적 관계에 관련한 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821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 생활지원 요구는 다섯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신뢰도 계수는 0.8161이었다.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은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였다. 연령계층을 보면 60-64세의 60대 전반이 36.0%, 65-69세의 60대 후반이 37.4%, 70-74세의 70대 전반이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사가 39.0%,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가 23.9%, 대졸 이상이 37.2%의 분포를 보였다. 현재 일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5.7%,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49.6%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는 응답이 17.3%, 보통이라는 응답이 51.4%, 좋다는 응답이 31.3%였다. 가구유형 별로 보면 1인가구가 50.5%, 부부가구가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노후생활 준비·노후 생활지원 요구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

〈표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을 평균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후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입과 저축이 감소하고 생활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연령계층별 차이를 보면, 60대 전반, 60대 후반, 70대 전반의 연령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60대 전반에서 평균점이 3.53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후반 3.31점, 70대 전반은 3.05점이었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에서 3.42점, 단기대학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 M(SD)
성별	남성	629(50.0)
	여성	628(50.0)
연령계층	60-64세	453(36.0)
	65-69세	470(37.4)
	70-74세	334(26.6)
교육수준	고졸 이하	490(39.0)
	단기대학/전문학교	300(23.9)
현재 소일여부	대졸 이상	467(37.2)
	일하고 있음	437(34.8)
건강상태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함	197(15.7)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하지 않음	623(49.6)
가구유형	좋지 않다	217(17.3)
	보통	646(51.4)
	좋다	394(31.3)
가구유형	1인가구	635(50.5)
	부부가구	622(49.5)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불안

	전체(n=1,257)	노후불안				
		수입과 저축의 감소, 생활비 부족	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간병비용	요양시설/의료 노인홈 입소비용	인지기능 등으로 자산관리 어려움	본인사후 상속 등 재산관리
성별	남성(n=629)	3.32	3.48	3.65	3.69	3.00
	여성(n=628)	3.34	3.49	3.57	3.61	2.97
	t값	3.30	3.46	3.72	3.77	3.04
연령계층	60~64세(n=453)	0.73	0.633	-2.632**	-3.233**	-1.287
	65~69세(n=470)	3.53 <sup>a</sup>	3.57 <sup>a</sup>	3.73 <sup>a</sup>	3.75 <sup>a</sup>	2.89 <sup>a</sup>
	70~74세(n=334)	3.31 <sup>b</sup>	3.51 <sup>a</sup>	3.70 <sup>a</sup>	3.73 <sup>a</sup>	3.09 <sup>b</sup>
교육수준	F값	3.05 <sup>c</sup>	3.30 <sup>b</sup>	3.46 <sup>b</sup>	3.57 <sup>b</sup>	3.04 <sup>ab</sup>
	고졸이하(n=490)	18.30***	8.36***	8.07***	4.55*	4.04*
	단기대학/전문학교(n=300)	3.42 <sup>a</sup>	3.51	3.72 <sup>a</sup>	3.66	2.92 <sup>a</sup>
현재 소일여부	대졸이상(n=467)	3.37 <sup>a</sup>	3.49	3.71 <sup>a</sup>	3.76	3.07 <sup>b</sup>
	일하고 있음(n=437)	3.18 <sup>b</sup>	3.43	3.53 <sup>b</sup>	3.68	3.04 <sup>ab</sup>
	F값	6.07**	0.94	5.59*	1.27	2.31 <sup>†</sup>
건강상태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함(n=197)	3.50 <sup>a</sup>	3.59 <sup>a</sup>	3.73 <sup>a</sup>	3.72 <sup>ab</sup>	2.86 <sup>a</sup>
	일하고 있지 않음/일하기 원하지 않음(n=623)	3.75 <sup>b</sup>	3.67 <sup>a</sup>	3.90 <sup>a</sup>	3.86 <sup>a</sup>	3.06 <sup>b</sup>
	F값	3.06 <sup>c</sup>	3.33 <sup>b</sup>	3.51 <sup>b</sup>	3.62 <sup>b</sup>	3.09 <sup>b</sup>
가구유형	39.58***	14.27***	14.37***	5.50**	6.26*	
	좋지않다(n=217)	3.76 <sup>a</sup>	3.93 <sup>a</sup>	3.96 <sup>a</sup>	3.82 <sup>a</sup>	3.11 <sup>a</sup>
	보통(n=646)	3.36 <sup>b</sup>	3.50 <sup>b</sup>	3.66 <sup>b</sup>	3.73 <sup>a</sup>	3.07 <sup>a</sup>
가구유형	35.16***	45.75***	19.45***	6.81**	7.28**	
	좋다(n=394)	3.01 <sup>c</sup>	3.19 <sup>c</sup>	3.45 <sup>c</sup>	3.56 <sup>b</sup>	2.84 <sup>b</sup>
	F값	3.47	3.49	3.75	3.72	2.91
가구유형	1인가구(n=635)	3.17	3.46	3.55	3.67	3.10
	부부가구(n=622)	4.955***	0.730	3.645***	1.056	-3.231**
	t값					

주1)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주2) <sup>a, b, c</sup>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및 전문학교에서는 3.37점, 대졸 이상에서는 3.18점으로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볼 때,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평균점이 높았다.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룹의 평균점은 3.06점이었었다. 생계문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건강상태별로 보면,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에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부부가구보다 1인가구가 평균점이 높았는데 부부가구의 평균점은 3.17점, 1인가구는 3.47점이었었다.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신과 가족의 의료 및 간병비용이 많이 들 것’에 대해서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평균점이 높았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은 그룹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룹은 3.59점이었다. 건강상태별로 볼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평균점이 가장 높아서 3.93점이었었다. 성별, 교육수준별, 가구유형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되면서 거처를 옮기거나 유료 노인홈에 입소하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성은 3.57점, 여성은 3.72점으로 여성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전반, 60대 후반, 70대 전반에서 각각 평균점이 3.73점, 3.70점, 3.46점으로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에서 3.53점으로 고졸이하,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의 평균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 싶은 그룹에서 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하고 있음 3.73점,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룹에서 3.51점이었었다. 건강상태별로는 좋지 않은 그룹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으로 3.96점이었었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평균 3.53점, 부부가구가 3.55점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성은 3.61점, 여성은 3.77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70대 후반에서 평균 3.57점으로 60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 싶은 그룹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별로 보면 좋지 않은 경우에 평균점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가구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인 사후에 상속 등을 포함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남성은 2.96점, 여성은 3.04점으로 여성이 조금 높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대 후반의 평균점이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전반이 3.89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단기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3.07점으로 가장 높았다. 현재 소일여부별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룹의 평균점이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나쁠수록 평균점이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 평균점이 2.91점, 부부가구는 3.10점으로 부부가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

〈표 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후생활 준비를 제시한 것이다. 노후생활 준비는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서 살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

	노후생활 준비								
	자기계발				사회적 관계				
	건강 유지	경제적 기반	평생 취미	전문 기술	부부/가족 관계	지인/친구 교류	이웃/지역 사회 교류	직장 이외 활동 공간	
전체(n=1,257)	3.77	3.64	3.40	2.77	3.50	3.47	3.05	3.03	
성별	남성 (n=629)	3.70	3.56	3.34	2.74	3.41	3.34	2.92	2.93
	여성 (n=628)	3.83	3.72	3.46	2.80	3.59	3.61	3.19	3.14
	t 값	-2.538 <sup>§</sup>	-3.607 <sup>**</sup>	-2.371 <sup>†</sup>	-1.251	-3.374 <sup>***</sup>	-5.544 <sup>***</sup>	-4.974 <sup>***</sup>	-3.810 <sup>***</sup>
연령 계층	60~64歲 (n=453)	3.70 <sup>a</sup>	3.60	3.36	2.73	3.36 <sup>a</sup>	3.37 <sup>a</sup>	2.86 <sup>a</sup>	2.88 <sup>a</sup>
	65~69歲 (n=470)	3.75 <sup>ab</sup>	3.61	3.39	2.80	3.52 <sup>b</sup>	3.48 <sup>ab</sup>	3.09 <sup>b</sup>	3.06 <sup>b</sup>
	70~74歲 (n=334)	3.88 <sup>b</sup>	3.73	3.47	2.78	3.66 <sup>b</sup>	3.60 <sup>b</sup>	3.26 <sup>c</sup>	3.19 <sup>b</sup>
	F 값	3.72 <sup>‡</sup>	2.22	1.45	0.67	9.92 <sup>***</sup>	7.03 <sup>***</sup>	18.11 <sup>***</sup>	10.49 <sup>***</sup>
교육 수준	고졸이하 (n=490)	3.72	3.59	3.38	2.69 <sup>a</sup>	3.50	3.55 <sup>a</sup>	3.08	3.02
	단기대학/전문학교 (n=300)	3.78	3.64	3.33	2.85 <sup>b</sup>	3.51	3.39 <sup>b</sup>	3.10	3.05
	대졸이상 (n=467)	3.81	3.70	3.47	2.80 <sup>ab</sup>	3.49	3.44 <sup>ab</sup>	3.00	3.03
F 값	1.16	1.69	2.13	2.93 <sup>†</sup>	0.03	3.35 <sup>‡</sup>	1.49	0.06	

		노후생활 준비							
		자기개발				사회적 관계			
		건강 유지	경제적 기반	평생 취미	전문 기술	부부/가족 관계	지인/친구 교류	이웃/지역 사회 교류	직장 이외 활동 공간
현재 소일 여부	일하고 있음 (n=437)	3.78	3.54 <sup>a</sup>	3.32	2.92 <sup>a</sup>	3.45	3.44	3.01	3.04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n=197)	3.74	3.53 <sup>a</sup>	3.37	2.81 <sup>ab</sup>	3.57	3.50	3.05	3.04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n=623)	3.77	3.75 <sup>b</sup>	3.47	2.65 <sup>b</sup>	3.51	3.48	3.09	3.02
	F값	0.10	8.08 <sup>***</sup>	3.29 <sup>*</sup>	11.46 <sup>***</sup>	1.01	0.37	0.86	0.10
건강 상태	좋지 않다 (n=217)	3.58 <sup>a</sup>	3.52 <sup>a</sup>	3.16 <sup>a</sup>	2.61 <sup>a</sup>	3.29 <sup>a</sup>	3.24 <sup>a</sup>	2.78 <sup>a</sup>	2.77 <sup>a</sup>
	보통 (n=646)	3.67 <sup>a</sup>	3.59 <sup>a</sup>	3.35 <sup>b</sup>	2.74 <sup>a</sup>	3.44 <sup>a</sup>	3.43 <sup>b</sup>	3.05 <sup>b</sup>	3.01 <sup>b</sup>
	좋다 (n=394)	4.03 <sup>b</sup>	3.79 <sup>b</sup>	3.63 <sup>c</sup>	2.91 <sup>b</sup>	3.71 <sup>b</sup>	3.68 <sup>c</sup>	3.21 <sup>c</sup>	3.21 <sup>c</sup>
	F값	27.04 <sup>***</sup>	7.97 <sup>***</sup>	20.70 <sup>***</sup>	8.14 <sup>***</sup>	16.45 <sup>***</sup>	19.31 <sup>***</sup>	15.13 <sup>***</sup>	14.98 <sup>***</sup>
가구 유형	1인가구 (n=635)	3.68	3.54	3.34	2.73	3.11	3.36	2.94	2.93
	부부가구 (n=622)	3.85	3.74	3.47	2.80	3.90	3.59	3.17	3.13
	t 값	-3.399 <sup>***</sup>	-3.814 <sup>***</sup>	-2.397 <sup>*</sup>	-1.35	-16.029 <sup>***</sup>	-4.605 <sup>***</sup>	-4.443 <sup>***</sup>	-3.529 <sup>***</sup>

주1) <sup>+</sup>p < .10, <sup>\*</sup>p < .05, <sup>\*\*</sup>p < .01, <sup>\*\*\*</sup>p < .001

주2) <sup>a</sup>, <sup>b</sup>, <sup>c</sup>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펴보았다. 또한, 자기개발에는 건강증진, 경제적 기반, 평생취미,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았고 사회적 관계는 부부 및 가족관계, 지인 및 친구와 교류, 이웃 및 지역사회 교류, 직장 이외의 활동 공간 확보로 보았다.

성별로 보면, 자기개발 네 항목, 사회적 관계 네 항목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해 건강유지에 힘쓴다는 것에 대해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3.83점, 남성은 3.70점이었다. 사회적 관계 중에서는 부부 및 가족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과, 지인 및 친구와의 교류에 힘을 썼다는 항목의 평균점이 높았고, 각각 여성은 3.59점, 남성은 3.41점, 여성은 3.61점, 남성은 3.34점이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연령계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및 가족관계, 지인 및 친구와의 교류, 이웃 및 지역사회교류, 직장 이외의 활동 공간 확보 등에 대해서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평균점이 높았다. 또한, 70대 후반의 부부 및 가족관계, 지인 및 친구교류의 평균점이 3.66점, 3.6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 중에서는 연령계층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된 것은 건강유지 및 증진이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자기개발 중에서는 전문기술 습득, 사회적 관계에서는 지인 및 친구 교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기술 습득이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2.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인 및 친구교류가 고졸이하에서 3.5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졸이상으로 평균점이 3.44점이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자기개발 항목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기반마련에 있어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평균점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평생취미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3.47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술습득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2.92점으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개발 및 사회적 관계의 평균점이 높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자기개발에서는 건강증진과 경제적 기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두 항목 모두 1인가구보다 부부가구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평균점 3.85점, 3.74점이었다. 사회적 관계에 관련한 네 항목 모두 가구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 및 가족관계, 지인 및 친구 교류, 이웃 및 지역사회 교류, 직장 이외의 활동 공간에 대해서, 부부가구의 평균점이 1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부가구의 부부 및 가족관계에 대한 평균점이 3.90점으로 매우 높았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요구도

〈표 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 현재 소일여부,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보면, 취미 등 사회활동 기회, 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 항목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 보면, 은퇴준비 교육과 상담,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 사회활동 기회,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타인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요구도

		노후 생활지원 요구				
		은퇴준비 교육/ 상담 기관 필요	은퇴 후 재고용/ 재취업 기회 필요	사회 활동 기회 필요	능력발휘 기회 필요	타인 교류 기회 필요
전체(n=1,257)		3.21	3.52	3.49	3.68	3.72
성별	남성(n=629)	3.22	3.49	3.35	3.59	3.56
	여성(n=628)	3.20	3.55	3.62	3.77	3.88
	t 값	0.382	-1.186	-5.765***	-3.887***	-6.981***
연령 계층	60~64세(n=453)	3.20	3.54	3.42	3.68	3.71
	65~69세(n=470)	3.22	3.55	3.51	3.70	3.70
	70~74세(n=334)	3.22	3.46	3.54	3.64	3.75
	F값	0.10	1.04	2.19	0.52	0.35
교육 수준	고졸이하(n=490)	3.17	3.50	3.48	3.64	3.71
	단기대학/전문학교(n=300)	3.24	3.56	3.52	3.73	3.76
	대졸이상(n=467)	3.24	3.51	3.47	3.68	3.70
	F값	0.76	0.34	0.26	0.93	0.56
현재 소일 여부	일하고 있음 (n=437)	3.16 <sup>a</sup>	3.68 <sup>a</sup>	3.44 <sup>a</sup>	3.72 <sup>a</sup>	3.70 <sup>a</sup>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n=197)	3.50 <sup>b</sup>	3.96 <sup>b</sup>	3.73 <sup>b</sup>	4.01 <sup>b</sup>	3.93 <sup>b</sup>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n=623)	3.16 <sup>a</sup>	3.27 <sup>c</sup>	3.44 <sup>a</sup>	3.54 <sup>c</sup>	3.66 <sup>a</sup>
	F값	10.83***	52.28***	9.21***	24.24***	8.02***
건강 상태	좋지 않다(n=217)	3.19	3.59	3.38	3.68	3.70
	보통(n=646)	3.21	3.53	3.50	3.67	3.71
	좋다(n=394)	3.23	3.47	3.53	3.69	3.75
	F값	0.08	1.13	2.24	0.03	0.50
가구 유형	1인가구(n=635)	3.21	3.51	3.44	3.62	3.67
	부부가구(n=622)	3.22	3.53	3.53	3.74	3.77
	t 값	-0.172	-0.373	-1.817 <sup>†</sup>	-2.471 <sup>†</sup>	-2.124 <sup>†</sup>

주1)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주2) a, b, c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항목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에 대한 요구의 평균점이 3.96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취미 및 사회활동 기회,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타인과 교류기회가 1인가구보다 부부가구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

〈표 6〉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은 각각 3.39점, 3.53점이었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소일여부별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 싶다는 그룹에서 2.91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에 비해서 부부가구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들 차이는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

		은퇴 후 생활만족도
전체(n=1,257)		3.46
성별	남성(n=629)	3.39
	여성(n=628)	3.53
	t 값	-2.371*
연령 계층	60~64세(n=453)	3.36 <sup>a</sup>
	65~69세(n=470)	3.47 <sup>ab</sup>
	70~74세(n=334)	3.58 <sup>b</sup>
	F 값	4.93**
교육 수준	고졸 이하(n=490)	3.32 <sup>a</sup>
	단기/전문(n=300)	3.51 <sup>b</sup>
	대졸 이상(n=467)	3.58 <sup>b</sup>
	F 값	8.58***
현재 소일 여부	일하고 있음 (n=437)	3.38 <sup>a</sup>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n=197)	2.91 <sup>b</sup>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n=623)	3.68 <sup>c</sup>
	F 값	50.44***
건강 상태	좋지 않다(n=217)	3.02 <sup>a</sup>
	보통(n=646)	3.39 <sup>b</sup>
	좋다(n=394)	3.81 <sup>c</sup>
	F 값	51.51***
가구 유형	1인가구(n=635)	3.33
	부부가구(n=622)	3.59
	t 값	-4.835***

주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2) a, b, c 기호는 Scheffe 사후분석결과를 나타냄. 동일문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4. 노후불안 · 노후생활 준비 ·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각 회귀모형의 VIF값은 1.76~1.80 수준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노후불안의 영향을 보면 수입과 저축의 감소, 생활비 부족 등의 불안이 클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한 결과였다. 다만, 영향력의 크기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준비를 보면,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준비 점수가 클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다만,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여성에서만 확인되는 결과로 취미를 만드는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소중히 하는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높이는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노후생활 요구의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은 취미 등 학습활동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보면,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은 고졸 이하에 비해서 대졸 이상일 경우,

〈표 7〉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남성			여성			
	B	SE	beta	B	SE	beta	
연령	60~64세(ref)	—	—	—	—	—	
	65~69세	-.038	.081	-.018	.018	-.011	
	70~74세	.051	.089	.023	-.075	.099	-.018
교육 수준	고졸 이하(ref)	—	—	—	—	—	
	단기/전문대졸	.186	.113 <sup>†</sup>	.062	.139	.0814	.083
	대졸 이상	.268	.075***	.134	.034	.096	.071
현재 취업 상태	일하고 있음(ref)	—	—	—	—	—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함	-.372	.104***	.131	-.397	.110***	-.116
	일하고 있지 않음/ 일하기 원하지 않음	.099	.080	.049	.199	.088 <sup>†</sup>	.049
노후 불안	건강상태	.260	.053***	.179	.196	.057**	.135
	수입과 저축 감소/생활비 부족	-.273	.044***	-.303	-.154	.047**	-.243
	자신과 가족 의료 및 간호비용	-.054	.055	-.051	.040	.054	-.012
	요양시설/의료 노인홈 입소비용	-.008	.053	-.008	-.081	.053	-.049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자산관리 어려움	.021	.050	.019	-.005	.053	-.018
	본인사후 상속 등의 재산관리	.001	.036	.001	-.019	.039	-.004

변수	남성			여성		
	B	SE	beta	B	SE	beta
건강유지	-.063	.042	-.058	-.014	.051	-.013
경제적 기반	.124	.045**	.119	.086	.046 <sup>†</sup>	.100
평생 취미 만들기	-.006	.044	-.005	.104	.053 <sup>†</sup>	-.009
전문 기술 습득	-.012	.045	-.012	.028	.047	.022
부부/가족관계 도모	.078	.042	.080	.092	.050 <sup>†</sup>	.089
지인/친구 교류	.050	.057	.044	.066	.060	.041
이웃/지역사회 교류	-.026	.053	-.025	-.100	.056 <sup>†</sup>	-.055
일터 이외 활동 장소	.021	.050	.021	.016	.055	.016
은퇴 준비교육과 상담기관 필요	.049	.043	.047	-.012	.045	-.023
은퇴 후 재고용/재취업 기회필요	-.084	.049 <sup>†</sup>	-.084	-.077	.054	-.070
사회활동 기회 필요	.068	.052	.060	.106	.061 <sup>†</sup>	.135
능력 발휘 기회 필요	.026	.060	.023	-.043	.065	-.032
타인과 교류 기회 필요	-.104	.055 <sup>†</sup>	-.092	.050	.062	-.053
상수	3.367	.281***	—	2.655	.347***	—
AdjR <sup>2</sup>		.315			.217	
F값		12.57***			7.96***	
N		629			628	

<sup>†</sup>p < .10, \*p < .05, \*\*p < .01, \*\*\*p < .001

여성은 고졸 이하에 비해서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일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일여부의 영향을 보면,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은 그룹이 일하고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한편, 여성은 일하고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일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다는 그룹에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제언

기대수명과 실질 은퇴 연령과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기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다.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뿐만 아니라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생활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고령자가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은퇴 전후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노년기 및

은퇴 전후시기에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 차원 및 사회 정책적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노후불안 요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이 다른 노후불안 요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부(2023b)의 「남녀공동참회사회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 성별차이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39.5%, 여성은 2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계층별로 볼 때, 60세-69세는 33.0%, 70세 이상에서는 46.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内閣府, 2023b). 경제적인 면에서의 남성의 노후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면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별분업 의식이 작용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영향력의 크기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크다는 점이었다. 노후생활 준비의 측면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준비 점수가 클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 후 노후 생활지원 요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에,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성 은퇴자가 가족 부양자로서의 의식을 더 강하게 느

끼고 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대해서 보면, 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요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에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은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은퇴 후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요구 점수가 다른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재능 기부 혹은 재능 나눔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재능 나눔이란 자신의 재주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나누면서 배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후생활 준비 중에서 사회적 관계에 관련한 항목에서 가구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인 및 친구와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 이웃 및 지역사회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 직장 이외의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것 등에서 1인가구보다 부부가구의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재능 나눔이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1인가구의 은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주요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의 현재 소일여부로 볼 때,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룹에서 수입과 저축, 생활비의 부족, 의료 및 간병비용, 요양시설 입소비용 등의 경제적 측면과 상속 등의 재산관리 등의 어려움 항목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은 그룹이 일하고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에서 공통적인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불안과 경제적 기반에 관련한 노후생활 준비가 여성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면을 담당하는 역할의 상실감이 남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역할 상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은퇴 후에도 역할상실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자신다움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발굴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때 새로운 '장소'는 단지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다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각부(2020)의 「제9회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2020)」에서 '자신의 취미와 기능을 살린 지원 활동'과 '취미, 스포츠, 학습활동 등의 지도'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內閣府, 2020),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후 생활지원 요구 중에서 은퇴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은퇴 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요구 점수

가 높은 점에 주목하면, 은퇴 후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지역사회 및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예로 '남성들이여 지역으로 돌아오라'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은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에도 직장을 떠나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어렵고 고립되기 쉬운 현실에 주목하여 정년퇴직 후의 남성들을 지역만들기의 주역으로 만들자는 사례이다. 남성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습득한 다양한 기능과 경험을 지역사회과제 해결에 적용하는 예로, 지역사회 교육지원, 지역사회 홍보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시민그룹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거기서부터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사례도 있다(NHK地域アーカイブ). 분석결과에서, 남성은 노후생활 준비 중 사회적 관계에 관한 준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사회적 관계 영역의 노후생활 준비를 충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노후 생활지원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그룹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가 있는 그룹에 비해서 은퇴 후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일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실질 은퇴 연령이 늦어진다는 점은 단지 소일거리를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공식 은퇴 연령은 65세이고, 실질 은퇴 연령은 70.8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격차는 5.8년이었다. 한편, 한국은 공식 은퇴 연령은 62세,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로 그 격차는 10.3년이라는 점(조선일보, 2022)은 노후의 취업지원 정책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고령자들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도, 노후생활 요구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은퇴를 경험한 고령자들의 노후불안 수준,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 등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조사 설계 및 분석상의 한계로 인하여 은퇴 후에 은퇴 전의 상황을 회고적으로 질문하였고, 은퇴 후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또한, 인터넷 조사 회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이 가능한 응답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60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학력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참고로, 2020년 실시된 국제조사의 결과를 보면, 60대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은 14.4%, 70대의 대학 및 대학원

줄 이상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政府統計の綜合窓e-Stat, 2023).

## 참고문헌

- 1)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68007](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68007)에서 2024. 04. 인출
- 2) 광민주, 이희숙(2015). 재무적 요인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1-30.
- 3) 김기홍, 양세정(2017). 은퇴가구의 경제상태 및 은퇴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0(1), 27-60.
- 4) 김미영, 손서희, 박미석(2011).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과 은퇴 후 삶의 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65-78.
- 5) 김민정, 박주영(2023). 은퇴자의 은퇴생활 경험과 영역별 은퇴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적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6(4), 107-141.
- 6) 김주희, 이기영, 최현자(2009).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73-93.
- 7)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8) 남순현(2017). 노인의 은퇴 후 삶의 적응에 대한 Glaser의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5-29.
-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3.07.25).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135>에서 2024. 04. 인출
- 10) 박현식, 최미영, 정장석(2018).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17(1), 47-64.
- 11) 백지은(2018).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감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403-413.
- 12) 성미애, 최새은(2010).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13-25.
- 13) 손유경, 최성문(2020).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7(2), 5-40.
- 14)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27, 81-93.
- 15) 염인숙(2019).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472-486.
- 16) 위세아(2019).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재무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8(2), 85-98.
- 17) 이종희(2001).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산정논총*, 2, 409-441.
- 18) 임소현, 이영광(2022). 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방안. <https://50plus.or.kr/upload/im/2023/01/59524c5a-dbdb-402e-ba0b-8397301b73e5.pdf>에서 2024. 04. 인출
- 19) 정근하(2020). 노년기 안정적인 사회연계망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2), 161-186.
- 20) 조선일보(2022.03.12). 세계에서 가장 딱한 한국의 가장... 72세까지 일해야 될 수 있다[행복한 노후 탐구].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3/11/TWFPCSXAUZFF7IONYHF4SYXCUM/>에서 2024. 04. 인출
- 21) 주소현, 이지혜, 홍수아(2012). 은퇴자 가계의 상속 및 증여의 경험과 은퇴설계 및 은퇴생활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한국FP학회)*, 5(1), 55-77.
- 22) 최영준(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근거이론적 접근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3), 353-378.
- 23) 한국고용정보원(2022). KLoSA\_9차\_설문지.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4. 05. 인출
- 24) Kadoya, Y., & Khan, M.S.R(2020). Financial Literacy in Japan: New Evidence Using Financial Knowledge, Behavior, and Attitude. *Sustainability*, 2020, 12, 3683, 1-15. DOI : 10.3390/su12093683
- 25) 有馬教寧(2021). 高齢者の就労と生きがいに関する研究の現状と課題. *日本労務学会誌*, 2(3), 92-102.
- 26) OECD雇用局医療課(2023). 図表でみる医療 2023 : 日本. <https://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Health-at-a-Glance-2023-Japan-Launch.pdf>에서 2024. 05. 인출
- 27) NHK地域アーカイブ <https://www.nhk.or.jp/chiiki/closeup/detail/19.htm>에서 2024. 05. 인출
- 28) 健康長寿ネット(2019). 高齢者の日常生活支援 <https://www.tyoju.or.jp/net/kenkou-tyoju/kenkochoju-torikumi/koreisha-seikatsu-shien.html>에서 2024. 05. 인출
- 29) 厚生労働省(2021). 高年齢者の雇用.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jigyounushi/page09\\_00001.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jigyounushi/page09_00001.html)에서 2024. 05. 인출
- 30) 厚生労働省(2022). 令和4年「高年齢者雇用状況等報告」の集計結果. <https://www.mhlw.go.jp/content/11703000/000955633.pdf>에서 2024. 05. 인출
- 31)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3). 2022(令和4)年度生活保障に関する調査. [https://www.jili.or.jp/files/research/chousa/pdf/r4/2022honshi\\_all.pdf](https://www.jili.or.jp/files/research/chousa/pdf/r4/2022honshi_all.pdf)에서 2024. 04. 인출
- 32) 政府統計の綜合窓e-Stat(2023). 令和2年国政調査 <https://>

- [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toukei=00200521&tstat=000001136464](http://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toukei=00200521&tstat=000001136464)에서 2024. 04. 인출
- 33) 東京大学高齢社会総合研究機構(2014). 高齢者の社会参加の実態とニーズを踏まえた社会参加促進策の開発と社会参加効果の実証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https://www.iog.u-tokyo.ac.jp/> <https://www.iog.u-tokyo.ac.jp/wp-content/uploads/2021/06/h25-report-01.pdf>에서 2024. 05. 인출
- 34) 内閣府(2012). 平成24年版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2/gaiyou/s1\\_3\\_2.html](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2/gaiyou/s1_3_2.html)에서 2024. 05. 인출
- 35) 内閣府(2019). 高齢者の経済生活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kourei/ishiki/r01/zentai/index.html>에서 2024. 05. 인출
- 36) 内閣府(2020). 第9回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 [https://www8.cao.go.jp/kourei/ishiki/r02/zentai/pdf/2\\_4.pdf](https://www8.cao.go.jp/kourei/ishiki/r02/zentai/pdf/2_4.pdf)에서 2024. 05. 인출
- 37) 内閣府(2021). 令和3年度 高齢者の日常生活・地域社会への参加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kourei/ishiki/r03/zentai/pdf\\_index.html](https://www8.cao.go.jp/kourei/ishiki/r03/zentai/pdf_index.html)에서 2024. 04. 인출
- 38) 内閣府(2023a). 令和5年版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3/zenbun/05pdf\\_index.html](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3/zenbun/05pdf_index.html)에서 2024. 04. 인출
- 39) 内閣府(2023b). 令和4年版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r04/r04-danjo/> <https://survey.gov-online.go.jp/r04/r04-danjo/gairyaku.pdf>에서 2024. 04. 인출
- 40) 的場康子(2018). 定年退職前後の生活の変化, LIFE DESIGN REOIRT SPRING, 2018, 4, 28-31. <https://www.dlri.co.jp/pdf/ld/2017/wt1802.pdf>에서 2024. 04. 인출
- 41) 松浦民恵(2011). 中高年男性の不安の構造を探る一パネル調査の文責を通じて. 日本労働研究雑誌, 616, 59-73.

- 투 고 일 : 2024년 03월 15일
- 심 사 일 : 2024년 05월 12일
- 게재 확정 일 : 2024년 06월 17일